

기획예산처, 2개월간 시범 사용을 거쳐 정부 부처 최초 AI 기반 '정부 전용 모바일 메신저' 도입·가동

- 생성형 AI와 협업 도구 등 다양한 기능의 탑재로 업무 효율 극대화 및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
- 혁신리딩그룹 「Vision X」의 시범 사용을 거쳐 60여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진화된 '기획처 맞춤형' 업무 메신저로 본격 가동

- 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4월 30일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'정부 전용 모바일 메신저'를 도입하고,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
- 새로 구축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생성형 AI와 문서 뷰어 등 강력한 업무 지원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.
 - (신속한 의사결정 지원) 외부 이동 중에도 메신저로 문서 등 각종 파일을 즉시 공유·확인할 수 있으며 메모 기능을 활용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.
 - (AI 회의 관리) 회의 시에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직원 간 즉시 공유하는 기능을 탑재해 업무효율을 높였다.
 - (AI 코파일럿) 메신저 내에 AI Copilot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검색, 문서 공동 편집 등 다양한 협업 기능을 업무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
- 특히 이번 메신저를 전직원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은 시범 운영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인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기능 개선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○ 기획예산처 혁신리딩그룹 Vision X*는 전체 직원이 만족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16일부터 45일간 메신저를 실무에 시범 적용하며 총 62건의 개선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다.

* 기획예산처 조직 혁신을 위해 직원 28명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내부 모임(2.3일 출범)

○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거쳐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능에 반영*함으로써 기획예산처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.

○ 주요 기능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(기존) 모바일 메신저에서 문서 열람을 하더라도 모바일상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여 상급자 보고는 추가적인 통화나 대면 보고 등 필요

⇒ (개선) 문서 열람시 메모 기능을 추가하여 상급자나 동료가 문서 상에 바로 의견을 기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

② (기존) 회의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 후 회의록을 직접 요약 작성하는 등 회의 종료 후에도 추가적 업무 부담 존재

⇒ (개선) 메신저 내 녹음 기능을 추가하고 회의 종료 후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다른 직원과 메신저에서 곧바로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

③ (기존) 대화창을 통한 업무 협의 시, 회의 등 일정 등록을 위해 별도 캘린더에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해야하는 불편함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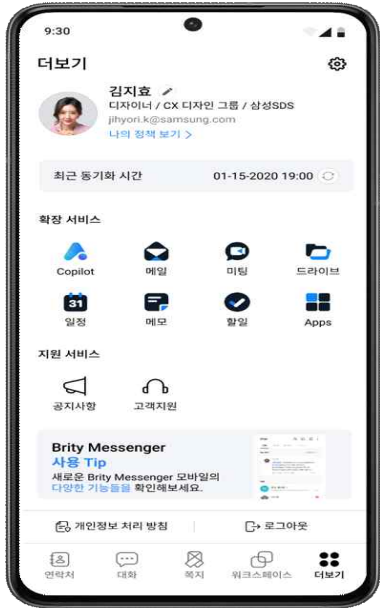
⇒ (개선) 대화창 내 AI 일정 추가 기능을 두어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일정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(예정)

□ 기획예산처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직 사회 내 효율적인 AI 기반 협업 플랫폼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및 적극 활용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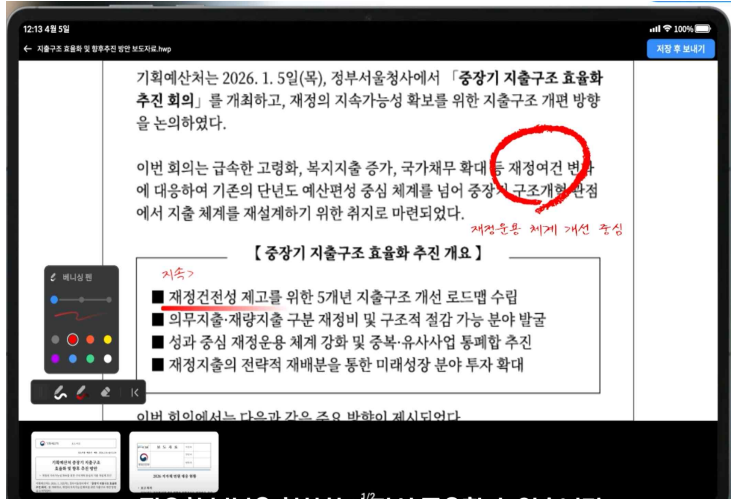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혜영 (044-214-14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창 (ddc5591@korea.kr)
	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	책임자	과 장	주영 (044-214-1470)
		담당자	사무관	구본균 (koo382@korea.kr)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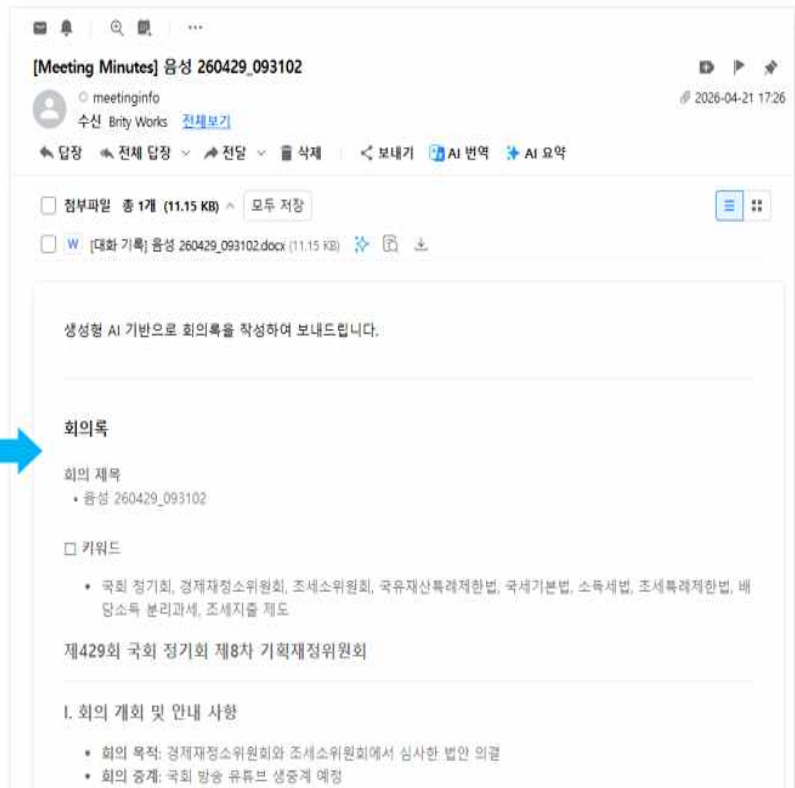
모바일 메신저 이미지



내부 화면



문서 뷰어 메모기능



녹음파일 AI 요약